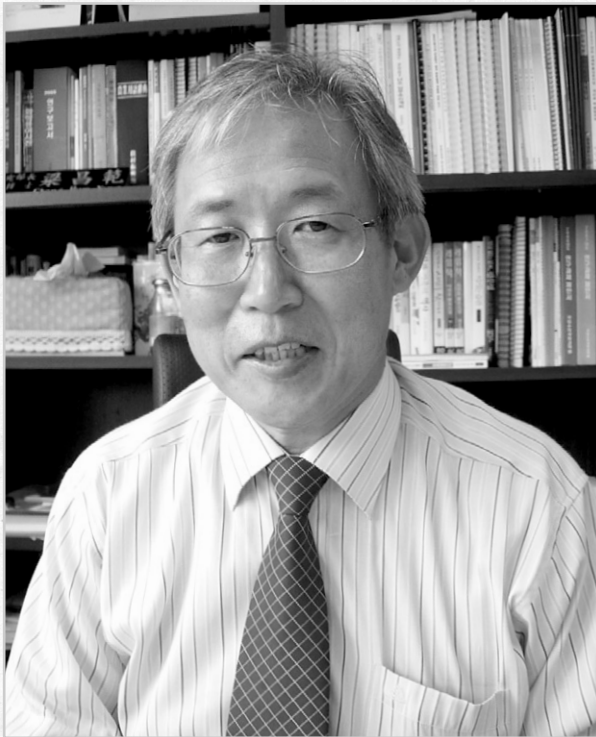


●● 양창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 부장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



▲ 양창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 부장

1979 제주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1981 제주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석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농학박사)
1984~00 제주시험장, 축산시험장
2000~02 농진청 연구개발국
2003~06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
농진청 단일직급추진단장(국장급)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회장
한국유기축산연구회 부회장

지난 5월 16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에 양창범 전 농촌진흥청 단일직급추진단장(전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축산환경과장)이 새롭게 부임하였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혼재되어 있는 연구기능을 분리·특성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질병연구부를 '가칭 동물위생연구소'로 전환하여 연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에 있으며, 질병진단센터를 설립하여 '질병진단기능'을 통합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연구를 위해 별도의 AI과를 새롭게 두는 등 조직이 금년 내에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칭 동물위생연구소'의 기능이 더욱 중시될 것이며, 양창범 부장의 부임으로 보다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창범 부장은 부임소감에서 '수의과학 기술개발과 정책지원을 통해 질병연구부가 축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축산기술과 질병연구의 접목

양창범 부장은 제주대학교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저공해

성 양돈사료개발' 과 관련된 주제로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4년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현 난지농업연구소)에 입사, 처음으로 연구직 생활을 시작하였고, 축산연구소 기금과, 농진청 연구관리국 축산운영관, 축산환경과장 등을 거치면서 축산 생산 및 환경 등의 연구를 통해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양창범 부장은 축산기술연구소(현 축산과학원) 시절에는 업무교류차원에서 가축위생연구소(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질병업무를 다년간 접한 경험이 있어 질병연구부장의 직무는 전혀 생소하지 않다고 전한다. 오히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처 기관과의 교류제도인 공모직위의 장점인 '개방과 책임'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축산연구와 조직관리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 질병연구 분야에 접목시킬 경우 정책지원 기술개발 및 축산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AI신속 정밀 진단법 개발

질병연구부중에는 조류질병과가 속해있어 가금 질병 예방을 위해 연구활동에 여념이 없다. 양창범 부장은 조류질병과 관련하여 겨울철이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질병연구 분야는 질병진단을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주느냐에 따라 방역활동은 물론 농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현안문제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방제기술 즉, AI 바이러스의 특성조사 및 예방법 확보, AI 신속 정밀진단법 개발 등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미 AI 간이진단 키트가 개발되었으나 저병원성만이 국내에 보급하고 있고 H5 키트는 수출외에는 국내보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AI과가 별도로 마련될 경우 실험실 진단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AI(H5)진단키트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보급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병원성AI 예방에 있어서도 이미 개발 보급되고 있는 백신(H9N2)의 효과적인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만의하나 나타날 수 있는 다른 타입의 백신개발에도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다. HPAI 예방을 위해 오리의 종란을 통한 바이러스 검사방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 닭의 주요 질병 예방과 진단을 위하여 ND에 대한 바이러스 특성 및 백신효능평가, IB 백신개발,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및 야의 감염과의 상관관계 등 현안 문제해결에 치중할 방침이다.

현장 애로사항 해결노력

양창범 부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안정적인 축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본회 등 생산자 단체는 물론 유관부처, 언론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통해 축산현안 문제 해결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양창범 부장은 지난 1990년대 초 축산연구소 기금과에 근무할 당시 '기금사양 및 재래닭에 대한 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연구를 한 바 있으며, 특히 본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재래닭 보존 연구사업'의 기초를 다지는데도 참여하는 등 양계업계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축산기술과 질병연구분야의 접목을 통해 축산업(양계산업)이 가일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